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6) LG아트센터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0년 개관한 LG아트센터의 내부모습.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구조체와 객석이 중첩으로 분리되는 신개념의 건축기법과 최첨단 음향시설 등을 갖춰 국내외 예술가들이 선망하는 무대이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여순 LG아트센터 대표

아트 문화 전당 콘텐츠  
'흥의 고장' 전라도 멋 살려  
상품화하면 문화자산 될 것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술관을 건립한 기업들은 많지만 공연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어요. 미술품 컬렉션은 재테크 효과가 있지만 공연예술은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연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킨 LG아트센터는 기업메세나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라고 자부합니다.”

올 1월 제2대 수장으로 취임한 윤여순(56)대표는 LG아트센터의 성공비결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최첨단 운영 시스템’을 꼽았다. ‘한물간’ 아티스트들 대신 당대 최고의 외국 공연들을 서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건 지난 10년간 쌓은 LG아트센터의 내공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아티스트들을 ‘홀대’ 해온 것은 아니다. 안무가 정영두와 ‘제7의 인간’, 연출가 서재형과 음악극 ‘코러스 오이디푸스’, 젊은 소리꾼 이자람과 관소리 브레이크트 ‘억척’ 등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다수의 공연을 기획해 무대에 올랐다. 인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공략한 ‘러시아인 콘서트’,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LAMP(LG Arts Center Meets People)’도 대표적인 자랑거리다.

윤 대표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와 관련해 “이자람의 무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라면서 “흥의 고장인 전라도의 고유한 DNA를 찾아 지속적으로 상품화한다면 훌륭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느 조직이나 시스템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끌어 간다”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연세대 도서관학과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영어교육 석사,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LG인화원부장으로 입사해 2000년 LG인화원 최초의 여성 임원(전무)으로 승진했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초대권 없는 공연장... 객석 메우는 감동공연



지난 10년동안 4차례 LG아트센터에서 내한공연을 가진 영국 안무가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LG아트센터 제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LG아트센터(대표 윤여순)는 공연계에서 인색(?)하기로 소문이 나왔다. 국내 문화예술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초대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분무 LG그룹회장도 LG아트센터의 공연을 관람하려면 티켓을 끊는다. 그를 총수가 숭수수법을 보이고 있는 덕분에 많은 공연장들의 속을 태우는 '초대권청탁'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초대권 없는 공연장'은 LG아트센터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 됐다.

지난 2000년 기업메세나를 내건 LG연암재단은 수준높은 공연문화정책과 '공연예술 불모지' 강남

건물 구조체와 객석 중첩으로 분리되는 최첨단 무대 갖춰

국내외 최고의 기획공연 '감동 두배'... 매년 20만여 명 찾아

의 부활을 모토로 아트센터를 세웠다. 총 620억원이 투입된 LG아트센터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1103석 규모(1층646석, 2층 249석, 3층 208석)의 다목적 공연장이다.

LG아트센터의 강점은 우선 건물 자체에 있다. LG연암재단은 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개관 6년전부터 테스크포스팀(기획공연, 무대설비)을 구성해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무용, 연극 등에 적합한 '최고의 무대'를 디자인했다. 보통 먼저 공연장을 짓고 기획공연팀이 꾸려지는 관행을 깨고 장르별 공연의 특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 무대를 설계한 것이다.

특히 강남의 한복판에 들어선 입지조건으로 인한 지하철 소음, 진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구조체와 객석이 중첩으로 분리되는 신개념의 건축기법을 도입했다. '내음률'에 '그릇'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컨셉은 수많은 공연장들의 벤치마킹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LG아트센터가 개관과 동시에 표방한 '초대권 폐지'는 단숨에 객석풍경을 바꾸었다. 상당수의 '초대받은 손님'들로 채워지는 일반 공연장들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달리 LG아트센터는 직접 입장권을

구입한 '알짜배기 관객'들로 열기가 뜨겁기 때문이다. 배우들의 몸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관객들의 생생한 눈빛은 지난 5월 루마니아의 '클루지 형가리안 시어터(Hungarian Theatre of Cluj)' 연출가 가보 톨바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뒤편이 아니라 LG아트센터의 매력은 '캘리타 높은' 기획공연이다. 피나바우쉬 부퍼탈 탄츨레 아티의 '카네이션',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부에나 바스티 소셀클립,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화이트 오 크랜스 프로젝트, 카마 긴카스의 '검은 수사', 에스토니아 필하모니 챔버와 파이어 등 세계 정상급의 예술단체들이 지난 10년간 LG아트센터의 무대에 섰다.

특히 지난 2002년 러시아 연극 '검은 수사'는 LG아트센터의 지력을 보여준 공연으로, 지금도 공연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러시아 연극단체 카마 긴카스는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무대와 1, 3층 객석을 연기공간으로 쓰고, 249석 가량의 2층만 객석으로 세팅하는 파격을 시도했다. 매일 1회씩 총 5일동안 계속된 '검은 수사'의 유료관객은 1천여 명. 수억원의 개런티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관객들은

무대와 1, 3층을 중첩무진하는 역동적인 공연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공연은 LG아트센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진 장사'였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공연에 감동한 관객들은 기계이 LG아트센터의 열혈팬이 됐다. 개관 10년만에 23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비결이다.

이처럼 LG아트센터가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모기업 LG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LG연암재단은 개관 당시운영기금으로 총 530억원을 출연해 수준높은 공연과 프로그램을 가능케 했다. 이 때문에 1년치 기획공연들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놓는, 이른바 '시즌제'를 운영해 다른 공연장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8명의 기획공연팀은 외국의 웹사이트와 자료를 토대로 LG아트센터의 '색깔'에 맞는 공연들을 후보로 올려놓고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매년 20개의 공연들을 선보인다. 이는 곧 '작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관객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키지 티켓을 구매한다. 82%에 달하는 높은 유료관객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매년 한 해 20만 여명이 공연장을 찾고 지난해까지 200만 명이 다녀갔다.

LG아트센터 이현정 기획공연팀장은 "동시대의 우수한 작품들을 국내팬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서 "유럽과 미국은 물론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섭외대상에 올려놓고 좋은 공연들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062)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덤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